

세계수출 10위권 상승

'09.1~4월 세계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순위는 지난해 12위에서 10위로 두단계 상승했다. '08년 수출시장점유율 순위는 (8위)벨기에 (9위)러시아 (10위) 캐나다 (11위) 영국 (12위) 한국이다. '09.1/4 수출시장점유율 순위는 (8위)벨기에 (9위) 영국 (10위) 캐나다 (11위) 한국 (13위)러시아이고, '09.1~4월 수출시장점유율 순위는 (8위)벨기에 (9위) 영국 (10위) 한국 (11위) 캐나다 (13위)러시아이다.

전세계(상위 15개국, '08년 비중 61.6%)의 '09.1~4월 수출감소율은 $\Delta 30.6\%$ 이나, 우리는 $\Delta 23.6\%$ 로 상대적으로 선전하여, 10위로 도약한 것이다. 캐나다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비중 77.7%)의 경기불황과

주요 수출품인 원유, 가스의 단가하락으로 수출이 급감($\Delta 36.1\%$)하여, 11위로 하락했다.

캐나다의 주요 수출국('08년, 비중)은 미국(77.7%), 영국(2.7%), 일본(2.3%), 중국(2.2%), 멕시코(1.2%)이고, 주요 수출품('08년, 비중)은 원유(13.9%), 가스(7.5%), 자동차(7.1%), 항공기(1.4%), 의약품(1.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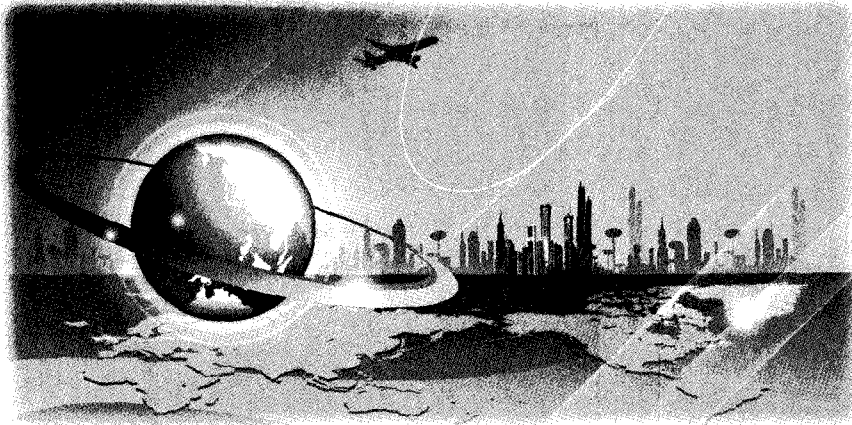
한편, 5월 수출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벨기에를 제외하고 1~5월 수출 통계를 분석하면, 11위인 캐나다와의 격차는 확대(40억불 \rightarrow 80억불)되었으나, 9위인 영국과의 격차는 유지(30억불)되고 있다.

'09.1~5월 우리의 수출감소폭이 영국, 캐나다보다 작아, 주요 경제변수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3/4분기

【최근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 비교(달러기준, '09.1~4월)】

(단위: 억불, %)

구분 (순위)	독일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프랑스 (5위)	네덜란드 (6위)	이탈리아 (7위)	벨기에 (8위)	영국 (9위)	한국 (10위)	캐나다 (11위)	홍콩 (12위)	러시아 (13위)	싱가포르 (14위)	멕시코 (15위)
수출액	3,420	3,374	3,294	1,618	1,450	1,291	1,214	1,120	1,078	1,049	1,015	908	787	776	717
증감율	-33.3	-20.5	-22.4	-39.6	-33.2	-32.1	-35.1	-33.5	-33.5	-23.6	-36.1	-20.5	-47.7	-32.2	-29.0



상승 및 환율 하락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관련부처·수출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출총력지원체제를 지속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세계 수출액에 있어 독일이 1위를 점하고 있다. 독일의 수출은 지난해 14,594억달러로 전년보다 9.9% 증가하였고, 금년 5

내 사상최초로 9위권으로 도약도 가능할 전망이다.

1월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09.4월 이후 300억불 내외로 회복한 반면, 영국은 280억불, 캐나다는 240억불 내외에서 정체된 상태인 것이다. 한국 수출액(억불, 증가율 %)은 ('09.1/4)746(Δ25.0) → (4)304(Δ19.8) → (5)281(Δ28.6) → (6)326(Δ12.4)이고, 영국 수출액(억불, 증가율 %)은 ('09.1/4)806(Δ32.9) → (4)272(Δ35.2) → (5)283(Δ32.5)이다. 캐나다 수출액(억불, 증가율 %)은 ('09.1/4)773(Δ35.1) → (4)242(Δ39.0) → (5)239(Δ42.4)이다.

지식경제부는 금년에 최초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내의 수출강국으로 진입이 확실시되나, 최근 유가

월 누계 4,279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3.3%이다. 2위는 중국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14,286억달러로 17.3% 증가하였고, 금년 5월 누계 4,261억달러로 -22.0%이다.

3위는 미국으로, 지난해 수출액은 12,914억달러로 12.4% 증가하였고, 금년 5월 누계 4,114억달러로 -23.0%이다. 4위는 일본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7,819억달러로 9.5% 증가하였고, 금년 5월 누계 2,034억달러 -38.9%이다. 5위는 프랑스로 지난해 6,084억달러로 10.0% 증가하였고, 금년 5월 누계 1,831억달러로 -32.6%이다.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해 13위로 4,220억달러로 13.6% 증가하였다. 금년 5월 누계는 10위로, 1,330억달러, -24.7%이다.

【최근 주요국 수출액 및 증가율 비교(달러기준, '09년 1~5월)】

(단위: 억불, %)

구분 (순위)	미국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한국 (4위)	영국 (5위)	캐나다 (6위)	독일 (7위)	러시아 (8위)	인도 (9위)	브라질 (10위)	프랑스 (11위)	홍콩 (12위)	타이완 (13위)	싱가포르 (14위)	멕시코 (15위)
수출액	4,279	4,261	4,114	2,034	1,831	1,620	1,544	1,120	1,360	1,330	1,254	1,172	1,014	978	888
증감율	-33.3	-22.0	-23.0	-38.9	-32.6	-31.8	-35.3	-46.7	-33.3	-24.7	-37.4	-19.1	-47.4	-32.1	-29.7

* 벨기에는 1~4월까지의 수치임.